

# 청소년 집단非行 늘어간다

## 상담 실무자들 토론회

청소년대책도 살인까지 부르는 10대편자음 10대집 단성폭행등 자주 폭 무리를 지어 갖는 비행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 비행의 집단화경향은 혼자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훨씬 흉포하고 지능적인 방향으로 몰고갈뿐 아니라 청소년자신의 도덕성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집단적인 청소년

비행은 자신을 「평범한 아 이」로 생각하는 청소년들에게 장래의 엘리트가 될 것만을 강요하는 어른들의 무리한 기대에서 비롯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의견은 각급학교의 방화과 크리스마스 및 졸업응원 청소년들이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를 앞두고 최근 청소년비행의 특징인 집단화경향의 문제점과 원인대점을 규명하

기 위해 청소년지도육성회 주최로 22일 오후 열린 상 담 실무자 토론회에서 제기 됐다. 먼저 「교육현장에서 본 청소년비행의 집단화경향」에 대해 발표한 서울영락고교 김정교장(정신과)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명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더 쉽고 심리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며 범죄행위도 유행비마련을 2차적인 이유로 바꿔쳐 되면서 각종 청소년비행의 집단화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청소년비행의 집단화경향은 더욱 흉포한 행동을 낳을뿐 아니라 범행을 하고도 동료를 사에서 자 랑거리고 내세우는 등 도덕성의 마비상태를 가져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고교교장은 우려했다. 청소년비행이 집단화되는 원인에 대해 中央大의대 李在光교수(신경정신과)는 「부모로부터 정신적 독립을 추구하는 청소년기에는 가족들과 갈등이 심한 반면, 자신을 이해해주는 또래집단에 의존하게 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는 대하일

이같은 청소년의 집단적인 비행을 막는 대책으로 鄭善경은 부모의 지나친 과보호기대, 맹목적 사랑을 이 청소년을 좌절감 등을 감속에 빠뜨리고 있으므로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鄭善경은 이밖에 학교와 사회에서는 일반청소년들을 위한 특별집단활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가정과 학교의 협력을 강조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비행의 집단화 경향」을 발표한 서울영락고교 김정교장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명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더 쉽고 심리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며 범죄행위도 유행비마련을 2차적인 이유로 바꿔쳐 되면서 각종 청소년비행의 집단화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 학교서의 좌절감 벗어나려 빗나간 행동 잠재력 개발등 선도 프로그램 마련돼야



시 출세제일주의 풍조들이 로 이같은 또래집단 의존 경향이 더욱 심해져가고 있 다고 설명했다.

보라매청소년회관 鄭根 善담장은 「특히 우리나라 에서 청소년비행의 집단화 경향이 심각한 것은 어른들 의 지나친 기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청소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청소년들을 을 또래집단에 의존토록 만들어 결국 집단적인 비행을 빚게 만든다(사 진)를 정신사와 관련영역」.

들은 자신을 수많은 평범한 청소년 가운데 한 사람이라 고 생각하고 있는데 출세지 상주의에 사로잡힌 부모들은 청소년들에게 「장래의 엘리트」가 되기를 강요하 며 자신의 자녀가 엘리트상 에서 벗어나는 실재한 인간 이라는 좌절감을 자녀에게 심어준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학교와 가정에서 나오는 자 소들이 끼리끼리 어울려 서로 의지하면서 가정과 학교가 안겨준 좌절감을 극복하기 위해 빗나간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성공 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과 자신감이 또다른 비행을 부른다는 것이다. 이같은 청소년의 집단적인 비행을 막는 대책으로 鄭善경은 부모의 지나친 과보호기대, 맹목적 사랑을 이 청소년을 좌절감 등을 감속에 빠뜨리고 있으므로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